

##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중근<sup>1</sup>, 김원종<sup>2\*</sup>

<sup>1</sup>여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을지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Jung-Geun Lee<sup>1</sup>, Won-Jo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Yeosu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및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4.35±.57점, 인성은 평균 3.99±.44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4.13±.44점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과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학과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41.8%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tudy subjects wer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earson's correlation, th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ocial support scor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4.35±.57, the average personality score was 3.99±.44, and the average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 was 4.13±.44. Higher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scores were related to higher professionalism. Furthermore, nursing professionalism was also related to gender, departmental satisfaction, and family relationships. Departmen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were related to higher levels of professionalism and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1.8%. In view of these results, strategie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increase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scores in order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Social Support, Personali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Won-Jong Kim(Eulji Univ.)

email: wjtkfd77@eulji.ac.kr

Received August 12,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Revised September 28,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 1. 서론

최근 사회적 환경 및 양식의 변화에 따라 간호현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인성은 성품, 개인의 기질적인 요소, 인격을 의미하는 인간다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2].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 입시가 중시되는 교육문화 등의 사회적 가치로 인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3]. 이러한 올바른 품성인 인성의 부재는 유년기에서 성인기에 다다름에 따라 과음, 폭행, 자살, 부적절한 성문화, 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3].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이 현안으로 부각되며[4],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5].

인성이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필수적인 품성으로[6], 인간-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실함 등의 자질과 품성이 요구된다[7]. 또한 간호대학생의 인성도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8,9], 선행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인성이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룬다고 하였고, 사회적 관계망 속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개인 스스로의 전문직업관 확립에도 주요한 변수라 보고하였다[10,11]. 이에 따라 올바른 인성을 가진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간호교육에서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 분석[12], 인성교육의 필요성[6], 인성중요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13], 인성교육 요구도 분석[14], 인성 관련요인[15]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며, 사회 구조의 지지와 인성, 간호 전문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전공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실습 부분에서는 임상 환경에서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6,17]. 이러한 학업적 부담과 대학생들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주변의 대인관계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타인에게서 관심과 존중을 받으며 사회 관계망 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뜻

한다[18]. 사회적 지지가 높고 견고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고 되었으며[19,20],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취업과 진로 선정에도 적극성을 띄며 전문직으로서 직업 정체성이 높아 졸업 이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간다고 하였다[21,22].

이에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는 임상에서 다양한 건강관리요원들과 의사소통을 이루며 질적인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대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인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갖도록 하여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23].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도 향후 바람직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 과정과 직업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 전문직관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지지[24], 간호사 이미지[24,25],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26] 등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나아가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윤리적 성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변수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을 바람직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행되었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 01일에서 2021년 11월 15일 까지 D 광역시 소재의 1개, G시 소재 1개 4년제 대학으로 총 2개의 대학 간호학과 학생이다. 대상자 모집에는 대학교 학과 사무실을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문의를 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절차 및 방법

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는 자발적 동의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에게 원하는 경우 연구 도중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교육하였다. 총 14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13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119명이 산출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사회적 지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2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Hwang[28]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었다. Hwang[2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 2.3.2 인성

대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ark과 Huh[2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긍정적인 생활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판단력,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세계시민 정신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Park과 Huh[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 이었다.

### 2.3.3 간호전문직관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Yeun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29개 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전문성, 간호실무 속성, 간호의 독자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3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9이었다.

## 2.4 자료분석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증 하였다.
- 3)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상자를 모집 시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대상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한 이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시에도 익명성은 보장되며, 설문결과는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동의한 경우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다. 문의 사항은 본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개인 식별 암호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과 학과만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198, p=.030$ ), 학과만족도는 사후 검정결과 만족과 매우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만족이 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082, p=.023$ ), (Table 1).

### 3.2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 정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이었고,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9점 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ocial support		Personali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8(20.7)	4.20±.51	-1.602 (.122)	4.02±.41	.399 (.690)	3.97±.40	-2.198 (.030)
	Female	107(79.3)	4.39±.58		3.98±.46		4.17±.44	
Degree	1-yeara	16(11.9)	4.43±.59	0.256 (.798)	4.14±.44	1.128 (.264)	4.29±.40	.074 (.941)
	2-yearb	35(25.9)	4.46±.59		4.12±.47		4.25±.38	
	3-yearc	31(23.0)	4.35±.60		4.02±.50		4.03±.50	
	4-yeard	53(39.3)	4.26±.54		3.85±.36		4.06±.43	
Religion	Christian	29(21.5)	4.48±.62	1.298 (.196)	4.12±.45	1.416 (.159)	4.26±.35	1.798 (.074)
	Catholic	13(9.6)	4.30±.60		4.05±.38		4.05±.45	
	Buddhism	7(5.1)	4.52±.59		4.18±.62		4.28±.38	
	Other	83(63.7)	4.30±.55		3.92±.43		4.08±.46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Dissatisfaction	5(3.7)	4.13±.76	-1.093 (.319)	3.60±.73	-1.810 (.130)	3.75±.55	-1.799 (0.126)
	Normal	43(31.9)	4.20±.56		3.82±.32		3.95±.42	
	Satisfied	63(46.7)	4.35±.56		3.99±.40		4.16±.41	
	Very Satisfied	24(17.8)	4.69±.46		4.39±.43		4.45±.3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4(3.0)	4.02±.62	-1.390 (.229)	3.59±.41	-1.491 (0.188)	3.33±.41	-3.082 (.023) c,d)a d)b
	Normal	24(17.8)	4.13±.51		3.73±.41		3.91±.46	
	satisfied	74(54.8)	4.30±.58		4.00±.36		4.16±.38	
	Very Satisfied	33(24.4)	4.67±.48		4.22±.52		4.32±.40	
Motivation of Department Application	Employment	44(32.6)	4.24±.63	-0.164 (.870)	3.97±.43	2.436 (0.993)	4.03±.48	1.092 (.304)
	Parental Invitation	25(18.5)	4.31±.55		3.81±.47		4.02±.42	
	Aptitude	60(44.4)	4.45±.53		4.06±.43		4.26±.38	
	Etc.	6(4.4)	4.42±.61		4.22±.42		4.00±.52	

\*a, \*\*b, \*\*\*c, \*\*\*\*d

Table 2.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ean ± SD	Range
Social Support	4.35 ± .57	1~5
Personality	3.99 ± .44	1~5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4.13 ± .44	1~5

### 3.3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인성( $r=.560, p<.001$ ), 간호전문직관( $r=.51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성과 간호전문직관( $r=.538, p<.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ocial Support	Personality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ocial Support	1		
Personality	.560 ( $<.001$ )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512 ( $<.001$ )	.538 ( $<.001$ )	1

### 3.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의 변수 중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성별, 전공만족을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2.149으로 2에는 가깝지만 0과 4에 떨어져 있어 잔차 독립성을 충족하였고,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 파악한 결과 tolerance 0.943으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672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충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 $\beta=.152, p=.039$ ), 사회적 지지( $\beta=.195, p=.021$ ), 인성( $\beta=.291, p=.001$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41.8%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pec.	B	SE	$\beta$	t	p
Constant	8.064	1.647		4.895	.000
Degree	-.949	.223	-.254	-4.259	.000
Major Satisfaction	1.776	.392	.292	4.528	.000
Self-Esteem	.103	0.54	.137	1.899	.059
Resilience	.071	.018	.302	3.922	.000
Adjusted R <sup>2</sup> =.324 F=25.270( p <.001)					

####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여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인성이 있었고, 이들 요인은 간호전문직관의 41.8%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인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35점으로 이는 Seo 등[31]의 연구에서 4.11점, park 등[32]의 연구에서 4.3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함께 진행하며 육체적, 심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현실이다. 타 학과에 비해 이러한 부담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가족, 친척, 친구, 학과 선후배, 학과교수 등 의미 있는 주변의 지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 할 수 있어야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Jeong [7]의 연구에서 3.93점과 Lim [33]의 연구에서 3.93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간호교육에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한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사의 핵심실무역량으로 기본적인 직장생활 능력에 포함되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인성이 강조되고 있다[34]. 바람직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교육에서 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개별적 학생에게 요구되는 인성 특성, 현재 인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Koo 등[24]의 연구에서 3.90점과 Kang[26]의 연구에서 3.93점과 보다 약간 높은 결과였다. 이는 최근 간호교육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사의 인상, 신념, 관념을 포함하여 예비 간호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확대 영향으로 여겨지며, 또한 Koo 등[24]의 연구 대상자는 COVID-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일어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비교에서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인 Kang[26]과 Ham[3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부터 신뢰감이 생성된 결과로 사료된다. 후후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인 학년에 따라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36]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자가 전국 지역에서 표집된 것이 아닌 일부 한정된 곳에서 모집되어 지역편중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차이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인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Yoon 등[37]의 연구와 Youn 등[3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는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Lee 등[39]의 연구와 Lee 등[4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간호전문직관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Jeong[41]의 연구와 Kim[42]의 연구에서 인성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인성으로 이들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을 4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Kim [42]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공감, 인성이, Kim 등[43]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인성, 전공만족도, 가족관계가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29.5~41.8%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학과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없어 요인의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인성이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에 치우쳐있는 현 상황에서 학년별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만족도를 높이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성을 동시에 고려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전국 지역에서 표집된 것이 아닌 일부 D 광역시 지역의 2곳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지역의 특수적 요인 영향이 본 연구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환경을 확대하여 지역편중으로 인한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연구 진행 시기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변인을 함께 측정하였다. 이는 변인들 사이 인과관계를 확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종단적 설계를 통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추가적인 후속 연구에서 대상자를 다양한 학과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인성,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지도, 교육과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개 지역과 2개의 대학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지역과 환경을 확대, 다양화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만족도, 사회적 지지, 인성 변인이 제시되었으므로 변수들을 고려한 다양한 간호교육 중재 전략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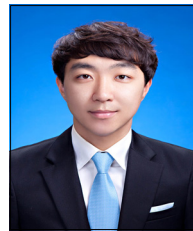
- [1]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60-56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 [2] S. B. Kang, E. S. Park, G. S. Kim, S. J. Song, Y. K. Chung, Y. R. Kim, M. S. Ko,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Korea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Vol.1, No.30, pp.1-38, 2008.
- [3] S. L. Do, "The character education as a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9, No.2, pp.143-159, 2013.
- [4] H. J. Ji, "An inquiry into the awareness on the liberal and character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7, No.5, pp.433-466, 2013.
- [5]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he appropriate worker who the corporations want(Issue Paper Report No. FIP-(2008)-0013), Korea Government Printing Office, Seoul, 2008.
- [6]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3321-3332, 2013.
- [7] M. H. Jeong, "Effect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 [8]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34-64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34>
- [9]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60-568,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 [10]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4, pp.298-306, 2018.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8.24.4.298>
- [11] E. S. Ji, M. S. Son, K. K. Shim,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100-107, 2020.
- [12] M. R. Lee, Y. K. Kwang,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pp.491-499,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7.046>
- [13] E. Y. Yeom, H. K. Mo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of personal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2, pp.691-701,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2.063>
- [14] S. M. Nam, J. S. Park, "Needs analysis for character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545-561,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5.545>
- [15] M. R. Lee, Y. K. Kwang,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pp.427-437, 2017.
- [16] Y. K. Yang, K. S. Han, M. H. Bae,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2-34,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17] S. H. Sh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14-24,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1.14>
- [18] G. S. Oh, "Social Support and Health", *Social Support Research Society*, Seoul: Hyeonmunsa.
- [19] C. Y. Lee; M. Y. Gwon, N. H. Kim, C. H. Gim, H. J. Kim, J. Y. Park, M. S. Shin, E. K. Han, "Effects of Grit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38, no.3, pp.680-688, 2021.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3.680>
- [20] M. Seo,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 [21] M. Park, W. H. Ju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op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34-4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34>
- [22] M. H. Jeong,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6, no.1, pp.125-141, 2019.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19.36.1.125>
- [23] M. H. Nam,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9, no.3, pp.329-339, 2013.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5.587>
- [24] O. H. Koo, "The Influ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346-356, 202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1.22.10.346>
- [25]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798-809,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798>
- [26]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 [2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1985.
- [28] Y. K. Hwang, "Study o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 peer-group and Psychosocial Matur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29] S. M. Park, S. H. Huh,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1, no.3, pp.35-47, 2012.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smeta&m=exp&enc=06AE22B4A9FEE968776970F72C916493>
- [30] E. J. Yeun, T.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31] M. Seo,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 [32] M. Park, W. H. Ju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op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34-41, 2016.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6.22.1.34>
- [33] J. H. Lim, M. H. Choi, "The Influences of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haracter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3, pp.1383-1398, 2021.
- [34] J. A. Kim, M. S. Chu, K. J. Kwon, H. K. Seo, S. N. Lee, "Core Competencies for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40-53, 2017.  
DOI: <https://doi.org/10.22650/JKCN.2017.23.1.40>
- [35]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536-544, 2011.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1.17.3.536>
- [36]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37-47, 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1.37>
- [37] Y. J. Yoon, J. K. Kim,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Korea Edutainment Society Journal of the Edutainment*, vol.4, no.2, pp.27-36, 2022.  
DOI: <https://doi.org/10.36237/Koedus.4.2.27>
- [38] J. J. Youn, B. M. Kim, J. J. Kim, "Impa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6, pp.387-397, 2015.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5.5.6.035>
- [39] S. Y. Lee, J. S. Lee,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03-412,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03>
- [40] E. K. Lee, O. H. Kim, "Comparison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4, pp.2135-2148, 2013.
- [41]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302-31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 [42] S.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Empathy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2, pp.95-103,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2.95>
- [43] W. J. Kim, J. G. Lee,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on nursing professional",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Semiannua*, 2021, pp.247-250.

## 이 중근(Jung-Geun Lee)

[중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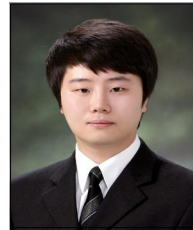
- 2018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1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2년 4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혈액투석, 만성질환, 간호대학생

## 김 원 종(Won-Jong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근육질환, 만성질환, 스트레스